

## 사이버윤리 연구동향 분석과 정보인권 측면에서의 평가

명 재 진\*, 이 한 태\*\*

###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 분야는 교육학분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분야로는 법학, 신문방송학, 철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순이었다. 사이버 윤리는 각 전공분야별로 중점적인 연구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이버연구 분석결과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이론 개발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추상적인 도덕규범 정립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실천적 생활윤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인권적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제간의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주제어: 사이버윤리, 사이버공간, 교육학, 정보인권

## A Meta-Analysis of Cyberethics Research and Critical Evaluation from a Perspective of Information Human Rights

MYUNG JAEJIN, LEE HAN TAE

###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cyberethics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most active and vibrant field of cyberethics is Pedagogy, followed by Law, communication, philosophy, social welfare science, soci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sychology. In the field of cyberethics every major has different research themes. The research trend of cyberethics does not reflect distinctiveness of cyberspace, remaining in previous ethical philosophy. Further, it just establishes abstract morality. In the overall research of cyberethics lacks recogni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erefore, it shows little tendency to living ethics. Moral recognition based on information human rights should be emphasized, and multi-disciplinary study is requested for future studies.

Keywords: cyberehics, cyberspace, pedagogy, information human rights

2013년 3월 4일 접수, 2013년 3월 5일 심사, 2013년 3월 22일 게재확정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onn@cnu.ac.kr)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idloi@naver.com)

## I. 서론

컴퓨터의 개발과 정보통신 혁명으로 도래한 사이버 공간은 이제 현실 공간 못지않게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생활 윤리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갖는 윤리적 의미와 그것이 사회와 인간의 가치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현실공간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많은 학자들이 참여적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사이버 공간에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이 등장하여 완벽한 자유토론이 가능해 지고 있다고 한다(최우정, 2007).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 반해 사이버 공간을 남용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사이버 공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 관점에 대한 윤리적 대응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사이버 공간은 개방적이고 비실명이라는 특성상 이용자들의 일탈감이 증대되고, 반사회적 행동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이를 남용·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성숙한 윤리의식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것이 사이버 윤리 연구의 대상이 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겨난 윤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사이버윤리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학문적 전개이고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향이다. 많은 윤리학자들이 정보화시대의 역기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행위들은 명예훼손, 음

란물유포, 해킹, 저작권침해, 사이버 적대행위(Cyber-bullying)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인터넷 중독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의 문제점은 현대생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윤리학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에 비해 익명성, 비동시성, 전 세계적 영향력 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실공간과 다른 윤리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영역은 아직 명확한 학문적 수준의 정착이 되지 않아, 지난 10년(2002-2012년) 동안의 연구 속에서도 일정한 공통의 합의가 나타나지 않고, 학문분야별로 편파적인 다른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모순적 주장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의 한국 내 사이버 윤리연구에 대한 동향을 전공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이 현재 우리 생활에 적절한 생활윤리를 제시하는데 적합하였는지 평가하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가치인 정보 인권적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난 사이버윤리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동향에 대한 반성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사이버윤리의 개념과 내용

### 1. 사이버 윤리의 개념

#### 1)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사이버 윤리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민의 행동규범을 정하는 사이버 윤리는 그 명칭에 있어서 '컴퓨터 윤리', '정보 윤리', '정보통신윤리' 등으로 불리고 있다.

사이버윤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의 도덕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도덕적 원리들에 의거하여 사이버 세계 속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추병완, 2003d). 또한 사이버윤리는 기존의 컴퓨터 윤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그 자체가 지니는 사회·윤리적 의미와 그러한 기술로 탄생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위들이 사회와 인간의 가치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을 의미하기도 한다(노병철, 2003c).

윤리적 가치를 정의하는 기준은 고전적으로 공리주의, 계약론, 자연권, 도덕적 의무의 관점이 있다(Spinello, 2001). 공리주의에 의하면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선이기 때문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계약론에 의하면 시민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사회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의하면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자연권적 시각은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궁극적 목적은 인격적 존재로서 자기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성과 보편성을 지닌 도덕 준칙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전통적인 윤리학의 이론들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기준을 둔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윤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윤리적 관점이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사이버 윤리의 특성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이며, 인터넷은 중앙의 통제자 없는 분권적인 공간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은 탈집중화의 성격을 갖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우선 사이버 공간은 그 이용자들의 활동이 익명적(Deindividuation), 불가시성(Invisibility)이라는 데 특색이 있다. 익명적인 활동은 이용자들 간의 거리를 멀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결과 도덕적 책임성이 낮아지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이용자들 간의 대화와 표현은 동시간대, 동공간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대화처럼 공간적·시간적으로 대칭성이 사라진 사이버 공간의 비동시성(Asynchronicity)으로 인해 도덕적 일탈의 문제도 심화된다. 어떤 사람들은 비동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적·감정적·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낸 후에 도망가기도 한다(추병완, 2003c).

또한 사이버 공간은 개방성으로 인해 이용자로 하여금 현실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여해 준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람을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 행동보다 훨씬 긴장감이 풀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비대면성의 이유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 이용자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 등 모욕적 언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이버 공간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단지 게임 수준의 인식을 지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책임부재의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은 탈억제 현상(Disinhibition)이 일상화되고 비인간화와 도덕적 일탈이 발생한다(추병완, 2012).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익명성, 개방성,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이버 윤리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윤리의 일반적 기준이나 가치가 적용되기 힘들다.

## 2. 사이버 윤리의 내용

### 1) 전통적 사이버윤리 연구 범주

전통적인 사이버 윤리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가 갖추어야 할 덕성을 개발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래서 사이버 윤리의 일반화된 덕성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공동체 인식 등이 제안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간에 있어서 도덕적 정서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공감대가 존재하고 이를 지키려는 욕구들이 발생한다고 한다.

기존의 사이버 윤리연구는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금지와 올바른 행동을 위한 대안연구 등이 주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 유형은 특정 도덕규범을 상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제도와 규칙만을 강조한데 있다(노병철, 2003b). 우선 그동안 사이버윤리에서 다룬 주제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사이버 성윤리(류지한, 2004)나 사이버시대의 인격과 도덕에 대한 주제들(김현수, 2006) 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사이버 윤리에 관한 추상적인 철학적 접근(이윤복, 2002; 노병철, 2005; 박수호, 2006)이나 심리학적 연구(장진경 2002; 명노홍, 2003; 신미진 외, 2006)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정보통신 생태계를 제대로 분석하고 윤리적 지침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 2) 새로운 방법론의 접근

최근의 사이버 윤리에 대한 연구는 과거와 같은 전통 윤리적 관점을 적용한 사이버 윤리학적 방법론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탈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알아보는 실증적인 연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상황별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는 실증적인 연구로 바뀌고 있다(제미경 외, 2010). 특히 청소년에 대한 실증적 실험이나 조사를 통한 연구가 전개되고(조성환 외, 2009; 차은진, 2011), 악성댓글 등 특정 주제를 겨냥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까지 제시하는 맞춤형 사이버 윤리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박정원 외, 2009; 조아라 외, 2010). 또한 중학생 등 특정 집단의 인터넷 이용행태와 관련된 정보통신 윤리를 연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차은진, 2012).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은 주로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윤리 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주입식 윤리지식의 전달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나 실질적인 행동관찰의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일반인이나 노인층에의 연구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

으며, 사이버공간 참여자의 일반 행위의 표준화 내지 규범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Ⅲ. 분석대상의 선정 및 그 범주

### 1. 분석대상의 선정

‘사이버윤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이버윤리’에 관한 연구는 하나의 학문분야나 특정 학회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논문과 학위논문의 수집 범위를 특정 학술지나 전공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 학술논문DB에서 키워드를 이용해 논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사이버윤리’ 하나만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연구자들이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사단어 ‘인터넷윤리’, ‘정보통신윤리’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사이버윤리’라는 표현이 법제화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사이버윤리’의 정의에 대하여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이버윤리’라는 개념이 사회와 학계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고, 또한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영역이 넓다보니 같은 개념이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질 수밖에 없다.

### 2. 분석대상의 범주

그 다음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들에 대한 풀을 마련해야 하는 바, 분석대상의 시점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물들에 대하여 초기부터 현재까지 각 학회지,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포털사이트 등 조사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물들을 망라하려고 노력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여

부를 불문하고 각종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전국의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의 학위 논문 및 단행본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단행본 중 IEQ(인터넷윤리자격)시험을 위한 수험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학문분야는 ①법학, ②행정학(정책학 포함), ③사회학, ④경영학(경제학 포함), ⑤사회복지학, ⑥교육학, ⑦심리학, ⑧신문방송학(커뮤니케이션 포함) ⑨철학(윤리학 포함)으로 수집된 자료들의 개수는 252편이다.

#### IV. 사이버윤리의 연구동향 분석

##### 1. 학문분야별 연구 실적과 성향

###### 1) 법학

실질적으로 보면 법학분야에서의 사이버윤리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범죄관련 연구물만 하더라도 최근 10년간 1000건에 육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연구물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학분야의 전체적인 연구실적을 보면 학술논문과 단행본에 비하여 학위논문의 비중이 적으나 이는 사

이버범죄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학분야의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 성향은 사이버상의 인권침해여부를 기준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법학분야의 대부분을 이루는 주제에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관한 내용규제’ (홍순철, 2003; 황성기, 2005; 양동철, 2007; 권현영, 2009; 최광호, 2011)가 있다. 그밖에 자주 논의되는 사이버 공간의 윤리 문제는 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규제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 여부이다. 또한 현행법의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과잉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이다 (홍승희, 2007).

###### 2) 행정학(정책학 포함)

정책학을 포함한 행정학 분야 역시 사이버범죄에 대한 것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분석대상 연구물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행정학분야 중 경찰행정분야의 연구물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대상인 행정학 분야의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연구실적이 동수인 5편씩이나 단행본은 찾아 볼 수가

〈표 1〉 사이버윤리에 대한 법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19	3	·	4	26
		3			
비율	73.07%	11.53%		15.38%	100%

〈표 2〉 사이버윤리에 대한 행정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5	4	1	·	10
		5			
비율	50%	50%		0%	100%

없다. 학술논문은 일반적으로 사이버윤리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거나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만섭 외, 2006; 이기식, 2007). 특이할 만한 사안은 사이버윤리와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이 2004년에 한편 존재하는 것으로(김만섭, 2004) 이는 행정학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 3) 사회학

사회학분야의 경우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실적이 많고, 최근에 와서는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아 보인다. 학술논문이 7편인데 그중 1편만 제외하고는 2008년 이전의 실적이고 학위논문은 모두 2008년 이전 실적이다. 다만 정보윤리를 강조한 정보사회학적 성격을 띠는 단행본 한권이 2010년 말에 출판된 적이 있다(최두진 외, 2010). 사회학분야 연구물의 특성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이버윤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며,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오관석, 2007).

### 4) 경영학(경제학 포함)

경제학을 포함하여 경영학분야와 사이버윤리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학술논문 8편과 2개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경영학분야의 특징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윤리나 소비자의 윤리를 서술한 학술논문들이 많은 편이고(제미경 외, 2010), 한국경영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라는 학술지를 통해서 개인 정보윤리에 대한 의식에 대한 연구를 경영학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김성수 외, 2003). 학위논문을 통해서 사이버윤리를 경영학적 차원에서 계량화하거나 평가 모델을 찾으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 5)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분야역시 최근까지 사이버윤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영역이다. 사회복지학분야의 사이버윤리에 대한 두드러진 특징은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망론하고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의식, 사이버비행

〈표 3〉 사이버윤리에 대한 사회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7	4	·	1	12
		4			
비율	58.33%	33.33%		8.33%	100%

〈표 4〉 사이버윤리에 대한 경영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8	2	·	·	10
		2			
비율	80%	20%		0%	100%

의 인과관계를 소재로 다루는 연구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청소년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복지연구라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윤리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최운실, 2002; 조아라 외, 2010; 차은진, 2012).

**6) 교육학**

사이버윤리와 관련해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은 교육학 분야이다. 아무래도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사이버윤리교육과 관련된 연구물들이 주로 사회교육(박정원 외, 2010), 윤리교육(천명주, 2005; 백운철 외, 2011), 도덕교육(추병완, 2003c; 2005; 2011) 분야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으며, 특

히 학생들의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분석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2004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행된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청소년의 도덕적 자아 형성을 위한 도덕교육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한편의 논문과 87편의 석사논문이 조사됐는 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편수의 학위논문으로 이는 각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 사이버윤리와 관련한 연구로 학위를 받는 것이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7) 심리학**

의외로 사이버윤리에 대한 분석대상 학문분야 중에서 가장 연구 실적이 지지부진한 분야가 심리학 분

**〈표 5〉 사이버윤리에 대한 사회복지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6	11	1	.	18
		12			
비율	33.33%	66.66%		0%	100%

**〈표 6〉 사이버윤리에 대한 교육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30	87	1	2	120
		88			
비율	25%	73.33%		1.66%	100%

**〈표 7〉 사이버윤리에 대한 심리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5	.	.	.	5
		.			
비율	100%	0%		0%	100%

야이다. 조사내용에 의하면 단행본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은 단한편도 없고 학술논문 역시 단 5편에 불과하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사이버윤리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일탈과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게임중독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김세영, 2010)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심리에 관한 연구(추병완, 2003b)가 주목된다.

**8) 신문방송학(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 분야도 비교적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그 원인은 인터넷과 SNS와 같은 것들이 일종의 미디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문방송학 분야의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특성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수성 그리고 그것의 윤리적 원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박성호, 2003), 분석대상 학문분야 중 법학과 더불어 가장 많은 단행본이 출간되었다(이수범, 2003; 박근서, 2005; 성동규, 2006). 단행본을 출간한 저자들은 모두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학

부나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저서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9) 철학(윤리학 포함)**

윤리학을 포함한 철학분야 역시 비교적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윤리학이 도덕철학(Philosophia Moralis)이라는 명목의 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이버윤리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철학분야에서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당연한 일이고, 본 연구에서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 등 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물들을 철학분야가 아니라 교육학분야에 포함시켜 학문적 분류를 하였음을 감안 하였을 때, 철학적 관점의 연구물은 표에 있는 건수보다 더 많은 분량을 내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철학이라는 학문분야의 속성에 걸맞게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윤리학의 철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김상득, 2005), 특정 철학에 바탕을 둔 사이버 윤리 이론연구(김성환, 2002), 사이버 공간에서 성 상품화에 관한 윤리적 연구(이희재 외, 2004) 등이 대표적인 연구 주제들이다.

〈표 8〉 사이버윤리에 대한 신문방송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14	8	·	4	26
		8			
비율	53.86%	30.76%		15.38%	100%

〈표 9〉 사이버윤리에 대한 철학분야의 연구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합계
		석사	박사		
연구건수	17	5	·	3	25
		5			
비율	68%	20%		12%	100%

〈표 10〉 사이버윤리에 대한 분석대상 학문분야의 연구실적에 대한 분석 종합

번호	학문분야	연구실적			합계	비율(%)	순위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1	법학	19	3	4	26	10.31	2
2	행정학	5	5	·	10	3.96	7
3	사회학	7	4	1	12	4.76	6
4	경영학	8	2	·	10	3.96	7
5	사회복지학	6	12	·	18	7.14	5
6	교육학	30	88	2	120	47.61	1
7	심리학	5	·	·	5	1.98	9
8	신문방송학	14	8	4	26	10.31	2
9	철학	17	5	3	25	9.92	4

## 10) 소결

앞에서는 법학,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철학 등 총 9가지 학문분야의 사이버윤리 연구실적과 각각의 성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각의 것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교육학 분야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분야에서 다른 학문분야와 많은 차이로 높은 연구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치에는 맹점이 있다. 즉 교육학분야는 순수한 학문단위를 형성하는 것은 드물며, 대부분 학제적인 학문분야로서 윤리교육, 사회교육, 도덕교육, 체육교육, 수학교육, 국어교육 등의 형식으로 학문단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본 연구에서처럼 분류대상기준에 따라 교육 관련된 여러 학제간의 연구들을 교육학에 포함시킨다면, 〈표 10〉의 6번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 여겨진다. 또한 교육학뿐만 아니라 앞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문분야 대부분이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철학분야의 경우 윤리학을 포함함으로써 인하여 본 연구동향분석의 표제어를 담고 있고, 법학분야에 대한 분석 범주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했음을 감안할 때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하여 오히려 법학분야에서의 연구실적을 주목할 만

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학 이외의 학제적 학문분야 연구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사이버윤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법률적 해결책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 2. 사이버윤리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

전체 252편의 연구물 중에서 주를 차지하는 것이 학위논문과 학술지이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에 비하여 석사학위논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그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사이버윤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각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 사이버윤리와 관련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특수한 현상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이버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행본의 경우 IEQ(인터넷윤리자격)시험과 관련한 수험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가치를 이유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컴퓨터공학관련 학문분야 역시 단행본으로

되어있는 출판물이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석대상 학문분야가 아니므로 포함 시키지는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관련 전공자들에게 ‘사이버윤리’ 교육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저조한 단행본이 개인연구자를 중심으로 14편이나 출판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현상이다.

### 3. 학술논문의 연도별 연구실적 추이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실적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석사학위논문이다. 이는 주로 특수대학원의 일종일 교육대학원에서의 졸업논문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사학위논문이나 단행본의 경우 그 수가 적어 이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아니하므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도 별 연구실적을 분석해 보았다.

사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도를 전후한 시점이다. 연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시작인 2002년 이전의 10년 치 학술논문의 실적은 20편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2000년도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시점은 2000년대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에서도 보듯이 2003년도에 연구성과의 정점을 찍고 그 전년도와 향후 3년 동안 전성기를 보인 이후로 2012년까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2010년도에 반등이 있었고 년도마다 시시각각 작은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이버윤리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표 11〉 사이버윤리에 관한 연구의 발간유형별 실적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석사)	학위논문(박사)	단행본	합계
연구건수	111	124	3	14	252
비율	44.04%	49.20%	1.19%	5.55%	100%

〈표 12〉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도별 학술논문의 연구실적

번호	년도	연구건수	비율(%)	순위
1	2002	12	10.81	3
2	2003	20	18.01	1
3	2004	10	9.00	5
4	2005	15	13.51	2
5	2006	12	10.81	3
6	2007	9	8.10	7
7	2008	5	4.50	10
8	2009	9	8.10	7
9	2010	10	9.00	5
10	2011	6	5.40	9
11	2012	3	2.70	11
	합계	111	100	

## V. 정보인권적 평가

### 1. 정보주체의 인권 측면에서 본 정보윤리연구동향의 문제점

#### 1) 사이버 공간과 인권

인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절대 불가결의 권리로 이해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인권들은 앞서 본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보미디어인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의 생성과 유통이 개인에게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에 의해 전개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정보사회라 하고 이러한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인권이 바로 정보인권이다(조일수, 2005; 김현수, 2006).

사이버 윤리는 내용적으로 공동체의 보호와 이용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누려야 할 개인적 정보인권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방향으로 이론이 전개된다. 이러한 사이버윤리의 연구방향은 자칫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특히 강조된다 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는 인터넷 활용에서 가장 선도적 국가가 되었으며, 이러한 인프라 속에서 사이버 인권에 대한 존중이 더욱 요망되는데, 그 중 개인의 의사전달을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는 학계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2.2.25. 89헌가104; 2002.4.25. 2001헌가27).

특히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의 보호가 중요한 권리로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인터넷은 전 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의 집합체로서 개방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하므로 외국의 보편적 규제와 동떨어진 우리 법상의 규제는 손쉽게 회피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법상의 규제가 의도하는 공익의 달성은 단지 허울 좋은 명분에 그치게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인터넷에 있어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 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고 실시하여 익명의 표현의 자유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 2) 정보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사이버 윤리연구 동향의 문제점

(1) 사이버 이용자인권과 사이버 윤리의 문제

사이버윤리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공동체적 집단의 식이 토대에 놓여 있다. 즉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공동체의 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이버 윤리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중앙집권적이며 인권 통제적 사이버 공간윤리를 등장시키게 된다. 공동체의 덕성을 위한 윤리적 감시나 제한은 결국 현실사회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에도 못 미치는 인권적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문제가 된다. 특히 청소년을 위해 사이버 공간을 더욱 더 규제하려는 윤리학적 주장은 오늘날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사이버 공간의 운영자들은 이미 많은 법적 규정들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 장치를 하고 있고,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성인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적 인권으로서 정보접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이용자들에게는 공간이 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익명적·비대칭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적·제도적 규제로 말미암아 정보인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사이버 윤리에서 나오는 공동체적 집단주의 사고를 버리고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새로 발생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에 대한 보장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천적 내용이 없는 사이버 윤리의 문제

지금까지의 사이버 윤리연구에 있어서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실천적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윤리연구에 있어서 정립되어 있는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도덕이나 컴퓨터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연구나 이미 철학적으로 논의되던

사항에 대한 연장에 불과하고 현대생활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천적 행동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많은 사이버 윤리연구들이 구체적 결론이 없는 예절교육이나(김대균, 2007) 현상분석이나 이론적 제안(김성환, 2002; 원형숙, 2006; 박수호, 2006)에 그치고 만다. 또한 사이버 윤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느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소극적·금지적 연구방식이다. 이러한 소극적·금지적 연구태도는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정보의 적극적 생산이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실천적 내용이 결여된 사이버 윤리연구는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그치고, 실질적인 행동윤리를 제시하지 못하여 생활철학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3) 사이버 윤리의 체계화의 부재

사이버 윤리는 전체 사회의 체계윤리 속에 속하는 하부 윤리에 해당한다. 사이버 윤리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이 사이버 윤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검토한 논문들 등에 나타난 현상을 보더라도 사이버 윤리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및 시민을 향한 사이버 윤리교육의 문제가 주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물론 철학, 사회학, 경영학, 언론학적 접근도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는 사이버 윤리연구의 부분적 역할만 한 것이고, 대부분 사이버 윤리교육의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종합적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사이버 윤리의 체계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연구에 대한 제언

1) 정보인권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비대칭성, 개방성이라는 특수성을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생활윤리가

제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윤리에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인터넷 상의 정보인권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겠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신개념 기본권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겠다.

첫째, 시민의 사이버 알권리가 우선되는 사이버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이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그동안 불편했던 일반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해진 데 있다. 국가기관은 그동안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많은 국가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개방해 왔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더 많은 공적인 정보들이 유통되고 공표되어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하겠다(장영수, 1999).

둘째,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기초적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내면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자유를 사이버 공간에 표출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면 내적인 종교적·양심적·사상적·예술적 의사결정이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된 다른 시민들과 소통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민주적 시민영역이 만들어진다.

셋째, 사이버 인권으로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증대가 요구된다. 사이버공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현실세계보다 한층 더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지켜져야 사이버 공간의 등장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성취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오프라인의 민주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화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윤리의 연구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활발하고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기존 윤리연구의 이론 편향성을 벗어나 생활윤리로서의 독자성을 갖게 될 것이다.

## 2) 사이버 윤리연구의 개선점과 학문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

사이버윤리에 대한 접근방법론에 있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노병철, 2003a).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탐색적 수준 또는 도덕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에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사이버 윤리연구의 파편적 접근에 그치고 사이버 윤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 인권적 시각에서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보에 관한 자유권의 인정을 통해 기술발전을 돕고, 인문학적 지평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연구는 결국 철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방송학, 법학의 모든 학문들이 유기적으로 공통되는 처방을 내놓아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윤리는 비로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생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융합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 다양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속에서 생활윤리로서의 시민윤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 윤리는 과거적 전형적인 고전이론에 입각한 공동체 유지적 체제이론이 아니라, 생활규범과 인권친화적 실천과학으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어

사이버윤리는 기존의 컴퓨터윤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그 자체가 지니는 사회·윤리적 의미와 그러한 기술로 탄생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위들이 사회와 인간의 가치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사이버 연구에 대한 전공

별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과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사이버 윤리연구는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금지와 올바른 행동을 위한 대안연구 등이 주가 되었는데, 특정 도덕규범을 상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사이버 윤리에 대한 연구는 사회일탈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알아보는 실증적인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윤리에 관한 연구는 전공별로 강조되는 점이 다르다. 법학분야의 경우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행정학분야는 일반적으로 사이버윤리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거나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사회학분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영학분야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윤리나 소비자의 윤리를 서술한 학술논문들이 많은 편이며, 사회복지학분야는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이버윤리와 관련해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은 교육학 분야인데, 교육현장에서 사이버윤리교육과 관련된 연구물들이 주가 된다. 신문방송학분야의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특성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수성 그리고 그것의 윤리적 원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철학의 경우 윤리학의 철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 특정 철학에 바탕을 둔 사이버 윤리 이론연구 등이 대표적인 연구 주제들이다.

사이버 윤리에 관한 연구동향의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이버 윤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우선적 개선 사항으로 윤리연구의 주가 되는 공동체적 집단주의 사고를 버리고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공간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는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통한 사이버 윤리연구의 재구성

의 필요성 지적된다. 이러한 정보인권 중심의 새로운 윤리연구를 위해 시민의 사이버 알권리, 인터넷 언론의 자유, 사이버 인권으로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연구는 한 분야의 성과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철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방송학, 법학의 모든 학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보사회에 맞는 생활윤리의 이론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이철·박종대·이종순 (2002). "통신윤리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중등교육연구』, 50: 1-17.
- 강진우 (2006). 「사이버윤리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 한국, 미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시면 (2006). "사이버윤리와 인터넷상 성적 표현물들의 판매 및 유포행위 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47(6): 5-20.
- 고시면 (2006). 「사이버윤리와 법률」. 서울: 인사동문화.
- 곽영길 (2009). "사이버상 권리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477-497.
- 구본희·최무진 (2006). "자아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연구』, 14(1): 53-66.
- 권선영·손영삼 (2002). "사이버 윤리 : 사이버 차원의 행위와 윤리에 대한 검토." 『대동철학회지』, 18: 357-377.
- 권현영 (2009). "인터넷규제를 위한 규범형성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46: 205-235.
- 김경배 (2005).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형성과 학습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e-Learning 활용방안." 『교육발전』, 24(2): 47-62.
- 김경호·차은진 (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2(2): 364-401.
- 김대균 (2007). "사이버 공간의 놀이에 대한 윤리적 고찰." 『윤리교육연구』, 12: 93-111.
- 김만섭 (2003). "선호도조사를 이용한 규제수단의 분담

- 및 전환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유해정보 중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 37-72.
- 김만섭 (2004). 「인터넷 유해정보 민간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사업자·이용자·감시자의 선호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만섭·정윤수 (2006). “인터넷 유해정보규제의 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분석.” 「현대사회와행」, 16(2): 19-51.
- 김민기·이진로 (2008). “인터넷의 공공성과 ‘악플’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9: 5-50.
- 김민선 (2005). 「사이버 윤리 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득 (2005). “사이버 공간의 존재론적 특성과 정보윤리학의 철학적 토대.” 「법한철학」, 38: 181-207.
- 김성벽 (2006). “사이버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이버윤리 지수 평가연구.” 「소년보호연구」, 9: 167-203.
- 김성수·임창우 (2003). “기업 윤리에 관한 인터넷 기업경영자들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기업윤리연구」, 7: 171-130.
- 김성욱 (2008). 「인터넷의 역기능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사용 교육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환 (2002). “道@사이버윤리 : 사이버윤리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도가철학적 성찰.” 「철학연구」, 84: 67-104.
- 김세영 (2010). “청소년 게임중독의 심리적요인과 상담.” 「상담과지도」, 45: 399-420.
- 김수정 (2003).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69-88.
- 김윤석 (2003). 「사이버 문화 정착을 통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수 (2005). “연구논문 : 초등학교 도덕과 정보윤리 교육 내용 선정 연구.” 「윤리교육연구」, 8: 107-134.
- 김은형 (2002). 「인터넷 음란 영상물 접촉이 청소년의 성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강간 통념 수용을 중심으로 : 서울 용산구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연 (2005).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200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 「시민과변호사」, 112: 12-14.
- 김한성·정혜진·이원규 (2010). “정보교과와 정보윤리 교육내용에 대한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0(2): 95-119.
- 김현수 (2001).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청소년 사이버 윤리 : 실상과 대책.” 「학생생활연구」, 22: 19-40.
- 김현수 (2005).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쟁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2006).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도덕교육학연구」, 7(1): 21-39.
- 김현수 (2007).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소년원생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정보윤리교육 교재 개발 연구.” 「윤리연구」, 67: 47-78.
- 김현진 (2008).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대학생들의 윤리 의식 비교.” 「교육논총」, 28: 39-56.
- 김형기 (2002). 「중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 : 극복 프로그램 적용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미 (2006). 「가출청소년의 가출후 ‘성 문화’ 탐색 : 인터넷가출카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유상진·구본희 (2007). “개인 특성 및 인터넷 활용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48: 101-124.
- 나일주·문정춘 (2010). “사이버세계 행위자의 사이버윤리 이해수준 및 선택적 관점 연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자 관점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6(2): 169-190.
- 남완우 (2008). 「인터넷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병철 (2003a). “사이버 윤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 99-126.
- 노병철 (2003b). “사이버윤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사회·윤리적 논제를 중심으로.” 「국민윤리연구」, 53: 337-357.
- 노병철 (2005). “사이버공간의 사회·윤리적 논제 : 사이버윤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교육발전」, 24(2): 23-42.

- 노영란 (2009). “도덕과의 정보윤리교육에서 도덕적 정체성교육의 의미에 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31: 141-179.
- 류승하 (2006).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그 대응방안 고찰 : 익명성의 역기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한 (2004).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 성윤리.” 『윤리연구』, 57: 97-120.
- 리차드 스피넬로·허만 타바니외·이태건 역 (2008).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윤리』. 고양: 인간사랑.
- 명노홍 (2003). 「정보윤리의식의 구성요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송 (200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신 (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법학논총』, 27(2): 65p-101.
- 박근서 (2004).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 박근서 (2005). 「유형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동준 (2005).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규제.” 『윤리연구』, 59: 1-25.
- 박동훈 (2008).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행태와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 (2006). 「1인 미디어 댓글 작성자의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 커뮤니케이션 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 (2003).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7(1): 75-113.
- 박소연 (2009). “올바른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정보윤리교육.” 『윤리문화연구』, 5: 273-322.
- 박수호 (2006). “사이버공간의 윤리적 쟁점과 불교윤리의 적용가능성.” 『동양사회상』, 14: 107-134.
- 박용준 (2010).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민간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보안 동호회, 커뮤니티, 대학생 동아리,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원·이성흠 (2009).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홍익법학』, 10(3): 119-147.
- 박정원·이성흠 (2010). “가상공간의 “악성 댓글”에 대한 자율규제와 네티켓교육.” 『교육법학연구』, 22(1): 21-47.
- 박종현 (2003). 「정보윤리 확립 방안에 대한 연구 : 사이버상의 역기능 현상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석 (2002). “중학교 정보통신윤리 활성화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15: 52-69.
- 백운철 (2008). 「인터넷 윤리(유비쿼터스 시대의 인터넷 법률 상식)」. 서울: 삼보.
- 백운철·김상겸·이준복·고기복 (2011). 「인터넷 윤리」. 서울: 이담북스.
- 백운철·이준복 (2009). 「알기 쉬운 인터넷 윤리」. 서울: 이담북스.
- 백장현·김도운·김영식 (2003). “컴퓨터교과교육 : 컴퓨터활용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처방 학습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모의재판 적용.”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6(1): 121-131.
- 변순용 (2004). “익명성과 사이버 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57: 121-141.
- 변호승 (2007). “정보윤리교육의 범위와 내용.” 『교육연구논총』, 27(3): 25-38.
- 사라 홀로웨이·질 발렌타인·이인재·박균열·김은수 역 (2008). 「사이버키즈와 정보윤리」. 고양: 인간사랑.
- 서예일 (2008). 「사이버윤리교육이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현영 (2006). 「지식정보사회와 윤리」.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 성동규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서울: 세계사.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 손경한·박진아 (2007).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법무부 간행물』, 37: 125-156.
- 손은덕 (2010). 「정보화 사회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시섭 (2010). “인터넷상의 변호사 윤리.” 『동아법학』, 49: 1-30.
- 신미진·이재운·김성식 (2006). “사이버 공간상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의식 함양 교수-학습 모형.”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9(3): 97-107.
- 신영재 (2004). 「‘취재원’으로서 인터넷정보의 이용과 인

- 격권침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스포츠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용하 (2011). "한국의 사회윤리-기업윤리·직업윤리·사이버윤리." 「김경동·김여진 저 <서평>, 한국사회학」, 45(2): 257-264.
- 심연수 (2005). "17대 총선후보자 홈페이지의 콘텐츠 분석 : 네티즌의 바람직한 사이버 정치 윤리의식 함양을 지향하며." 「윤리연구」, 59: 61-81.
- 심영희 (2003). "사이버 성폭력과 윤리." 「범죄방지포럼」, 12: 55-73.
- 안동근 (2008). "인터넷 시대의 언어 : 문법 파괴 및 비방." 「경제연구」, 27: 97-113.
- 양동철 (2007).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 실태에 대한 소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심의를 중심으로." 「승실대학교 법학논총」, 17: 45-92.
- 양동철 (2007). "해외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인권과정의」, 365: 176-197.
- 양해림·임윤정·이영자·황인선·정운승 (2011). 「사이버공간과 윤리」.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 엄주희 (2003). 「인터넷 방송의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관석 (2007).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과 사회적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0(2): 171-191.
- 오정용 (2012). "인터넷윤리와 법규범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규범을 지향하며-." 「법학연구」, 48: 469-498.
- 원철린 (2003). 「디지털 시대의 영상 매체 윤리 규제 정책 방향 연구: 규제기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형숙 (2006).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연구 : 원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미·김미량 (2010). "실천적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사이버 일탈행위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3(5): 51-70.
- 유수운 (2007). 「정치적 표현으로써 인터넷 패러디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진 (2010). "인터넷 뉴스 댓글 저널리즘 이용자 연구." 「주관성연구」, 20: 23-39.
- 윤주영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감소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오 (2002). "정보화 사회에서 통일사상의 윤리적 역할에 관한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0: 23-56.
- 이경화 (2002). "온라인불량행위에 관한 이해 : 처리와 대응." 「인간발달연구」, 9(2): 55-71.
- 이경화 (2003). "건전한 온라인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초·중교육의 방향." 「인간발달연구」, 10(1): 57-72.
- 이광원 (2008).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악플 피해 사건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악플 게재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식 (2007).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CyberEthics)의 영향요인분석 : 매체-내용-상황-문화관점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회보」, 11(3): 49-76.
- 이기식 (2008).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Cyber\_Security)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99-127.
- 이기식 (2011).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관한 연구: 영향요인도출." 「디지털정책연구」, 9(6): 57-70.
- 이남준 (2003). 「농촌지역 중학교 학생의 정보통신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 (2006).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구조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무부 간행물」, 36: 113-136.
- 이상구 (2009).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2006).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421-440.
- 이성식 (2008).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아와 청소년비행." 「형사정책연구」, 19(3): 229-249.
- 이성식 (2009).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의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3): 191-212.
- 이수범 (2003). 「사이버 윤리」. 서울: 한국통신문화재단.
- 이수범 (2004).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 캠페인 연구." 「소년보호연구」, 7: 137-179.
- 이영음 (2003).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 179-211.
- 이용호 (2005). "연예인 X파일 파장 : 치명적 사회법범자-피해자 양산하는 '인터넷' :법적 규제 미흡, '네티즌' 윤리의식이 해결책." 「자유공론」, 40(3): 93-95.
- 이윤복 (2002). "디지털 정보시대와 윤리적 쟁점들." 「철

- 학연구», 84: 133-174.
- 이재진 (2011).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의 의미 : 외적인 독립성과 내적인 주체성 확인." 「신문과 방송」, 482: 35-39.
- 이중섭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폐해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2004). "사이버문화와 책임윤리." 「사색」, 20: 55-78.
- 이준희 (2011). "인터넷 윤리교육을 위한 SNS 기반의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구현과 효과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지」, 10(3): 61-76.
- 이철현 (2005). "교내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중독 성향과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5(2): 115-145.
- 이향연 (2011). 「현대 정보사회와 전통윤리의 적용가능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량 (2002). 「인터넷내용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P. 부르디외의 장(Champ)과 상징폭력(violence symbolique)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재·선재순 (2004).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의 상품화에 대한 윤리적 고찰." 「대동철학회지」, 25: 187-209.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편집부.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윤리현장 외."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9(4): 523-536.
- 임경순 (2002). 「초등학생의 INTERNET 음란물 접촉 실태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성시 소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수 (2003). "정보윤리교육의 방법론 모색." 「윤리연구」, 54: 261-291.
- 임상수 (2005).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윤리교육의 대응 :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사례." 「윤리연구」, 59: 27-60.
- 임재화·이영복 (2002). "원주권 중심의 정보윤리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7: 157-182.
- 장경채·전상균 (2005). "인터넷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의 과제."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교육저널」, 17: 83-105.
- 장미·조아미 (2006). "청소년의 사이버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3(2): 1-17.
- 장영수 (1999). "정보화 시대의 인권·법." 「법학논집」, 35: 21-44.
- 장정선 (2005). 「학교 미디어 교육의 도입 방안에 대한 인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현 (2009). 「청소년의 비행 요인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경 (2002). "정보통신윤리의식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 「청소년복지연구」, 4(1): 117-135.
- 장하용 (2003).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23(1): 86-91.
- 전우천·정효숙 (200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초등학교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교수 모형의 개발 및 적용." 「한국초등교육」, 15(1): 455-480.
- 정숙경 (2002).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합행동과 소통윤리 :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단체의 사이버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0: 75-104.
- 정완 (2004).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피해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2(1): 167-212.
- 정원섭 (2002). "[인터넷 철학문화] <사이버 윤리 포럼>을 제안하며." 「철학과현실」, 54: 223-228.
- 정원섭 (2004). "사이버 공간의 윤리학적 함축에 대한 연구 : J. Rawls의 원초적 입장과의 비교." 「철학사상」, 18: 163-182.
- 정찬모 (2003). "실증조사를 통해 본 사이버윤리와 규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 157-177.
- 정희태 (2004). "초등학생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15(1): 113-152.
- 제미경·전향란 (2010). "대학생소비자의 인터넷 이용행태와 정보통신윤리." 「소비문화연구」, 13(2): 45-60.
- 조미진 (2006). 「인터넷 중독 실태 파악을 통한 청소년복지 정책의 과제 : 광명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환·김길모·유형근·김성식 (2009).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의한 청소년 정보통신윤리 실천 행동의도의 분석." 「중등교육연구」, 57(2): 1-30.
- 조아라·이정운 (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7-131.

- 조인희 (2002).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 :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일수 (2005). “정보 인권의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60호: 211-234.
- 주승희 (2011).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 「형사정책연구」, 22(2): 31-65.
- 차은진 (2011). 「중학생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의식, 사이버비행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의식, 사이버비행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27.
- 천명주 (2005). “정보기술 사회의 윤리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기술 사회의 윤리적 조건.” 「윤리교육연구」, 8: 287-307.
- 최광호 (2011). 「인터넷상의 음란·선정성 정보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을과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두진·김현철·강장묵·김봉섭·임상수 (2010).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최부용 (2008).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유대 강도가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우정 (2007). “사이버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으로서의 사이버 기본권의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3: 261-303.
- 최운실 (2002).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청소년학연구」, 9(3): 337-361.
- 추병완 (2002). 「정보 사회와 윤리」. 서울: 울력.
- 추병완 (2003a). “가정에서의 정보윤리교육 방법 개발.” 「교육연구」, 20: 3-22.
- 추병완 (2003b).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의 도덕 심리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17: 103-117.
- 추병완 (2003c). “사이버윤리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 127-156.
- 추병완 (2003d). “청소년의 사이버 윤리의식 함양.” 「밝은사회연구」, 24: 33-57.
- 추병완 (2005a). “사이버 공간에서의 탈역제와 정보윤리교육의 방향.” 「도덕윤리과교육연구」, 21: 205-223.
- 추병완 (2005b). “사이버 공간에서의 탈역제와 정보윤리교육의 방향.” 「도덕윤리과교육연구」, 21: 205-224.
- 추병완 (201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시대에서 사이버윤리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32: 1-20.
- 추병완 (2012).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과 인터넷 윤리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87: 119-141.
- 홍성태 (2003a). “사이버 공간, 시민사회, 윤리의 정치.” 「민주사회와정책연구」, 3(1): 75-92.
- 홍순철 (2003b). “정보통신 내용규제 정책.” 「과학기술법연구」, 9(1): 35-60.
- 홍승희 (2007). “사이버상 불법·유해정보에 의한 피해현황과 실효적 법제도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15(1): 233-256.
- 황성기 (2005).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5: 5-55.
- Spinello, Richard 저·이태진·노병철 옮김 (2001). *Cyberethics: Morality and Law in Cyberspace*. 고양: 인간사랑.